

“盧정부, 부동산·교육·통일정책 실패”

김광웅 서울대 교수 밝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3일 “미래에는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4일 개최하는 제299회 ‘정책&지식’ 포럼을 앞두고 이날 미리 공개한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이란 발제문에서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정부의 역할은 재조명돼야 하고 정부 각 부처가 효율성과 기능 위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자부·국정 홍보처·여성부 폐지해야 과잉 홍보 정책으로 국민 혼란만 불러

양인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폐지하고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산업부 등 겹치는 성격의 부처를 통합하고 국토안전부, 공공주택부, 우주청 등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지해야 할 부처로 행자부 외에 여성가족부, 국정홍보처, 조달청 등을 꼽았고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등 분야를 복지부로 통합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자원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통합은 공무

원 숫자의 축소를 동반해야 하며 대통령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최대 약점은 혁신정부란 이미지만 강조하다 실재와 주체는 사라지고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은 줄 모르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난 4년간 부동산, 교육, 통일 등 정부 정책은 실패를 거듭했음에도 현 정부는 아직 작기 때문에 공무원들 처중해야 하고 빛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세계화 지수에서 한국은

62개국 중 29위에 머물렀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61개국 중 38위에 머물렀다”며 “세계은행(World Bank) 평가에서도 정부의 효율성은 2002년 81.8점에서 2005년 78.9점으로 하락했다”고 정부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고 일단 잘하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홍보를 통해 실재와 이미지를 뒤바꿔 국민에게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홍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려면 ▲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 日 열도 잇단 ‘이지메 자살’ 충격

‘자살 예고 편지’가 현실로

일본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학생들의 자살이 ‘광풍’(狂風)처럼 번지고 있다.

지난달 남녀 중학생이 이지메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이지메 자살’을 예고하는 학생들의 편지가 교육당국에 배달돼 열도를 긴장시킨 가운데 기어이 12일 2건의 ‘이지메 자살’이 터졌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도쿄 인근 사이타마 혼조시 시립중학교 남학생(3학년)이 집 창고에서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숨진 학생은 지난 6월 상담원에게 “이달 들어 다른 반 아이로부터 ‘빌린 500엔에 이자를 붙여 2만엔으로 갚으라’고 강요받고 있다”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숨진 학생은 돈을 빌린 일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학교측은 숨진 학생이 이지

메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6시40분께 오사카 돈다바야(富田林)시 시립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1학년)도 “저는 자살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초등학교 교장 자살은

이지메 허위 보고 ‘자책’

이 학생 역시 평소 말이 없는 성격으로 친구도 적어 자칫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고 보고 담임교사가 특별관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이지메 자살’을 예고하는 편지가 문부와 학생에게 배달되고 유사한 자살예고 편지가 이어지자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문부과학상이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 자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거듭 발표하는데 이

어 종합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이지메 자살’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았다.

자살 예고 편지의 소인이 찍힌 지역의 학교에는 자살예고일이었던 지난 11일 늦게까지 주요 교사들이 남아 비상근무를 벌이며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대비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노력에도 12일 이지메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자살이 잇따르자 허탈감과 충격에 빠졌으며, 자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후쿠오카 기타규슈시 한 초등학교 교장(56)마저 12일 자신이 이지메 실태를 상급기관에 허위보고 했던 것을 자책하며 목을 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장은 숨지기 전날 “5학년 여학생 2명이 급우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것을 이지메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시교육위원회에 거짓 보고했다”며 사과회견을 했었다. /연합뉴스

에이즈! 이전 만성질환일뿐

에이즈 치료제가 속속 개발됨에 따라 에이즈 환자의 생존기간도 연장되면서 에이즈가 이제는 사형선고기 아닌 만성질환의 하나로 바뀌어가고 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웨일 코넬 의과대학 공중보건학교수 브루스 슈마크먼 박사는 의학전문지 ‘의료(Medical Care)’ 11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미국 에이즈 환자의 평균 생존

환자 평균 24년 생존

평생 치료비 62만불

기간은 24년이며 이 기간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은 약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1인당 61만8천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슈마크먼 박사는 전국 18개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에이즈 환자 1만4천명 중 7천명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의 한달 평균 치료비는 2천100달러(이 중 3분의 2가 약값),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에 산입하면 평균 생존기간 24년 동안의 총치료비는 61만8천달러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하노이 시민 오토바이 출근 물결

오는 15일부터 제18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의가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 시내, APEC을 환영하는 대형 아치 사이로 하노이 시민들의 오토바이 출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하노이=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 도시설계연구소 스샤오둥(石曉東) 설계사는 현재 베이징시 지하에 개발된 면적이 3천만㎡라면 시를 이룰 때까지 9천만㎡에 이르는 도심의 지하 타운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민 1인당 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그러나 지하 타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등 구체적인

중 베이징시, 대규모 지하타운 건설

중국 베이징(北京)시는 지상 교통혼잡과 도심 용지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지하 타운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베이징시 도시설계연구소는 상가가 밀집된 왕푸징(王府井)과 사무용 빌딩이 운집한 중심업무구역(CBD) 등 17곳을 지하 공간 집

중 개발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시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9천만㎡에 이르는 도심의 지하 타운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민 1인당 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그러나 지하 타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등 구체적인

공간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시 도시설계연구소 스샤오둥(石曉東) 설계사는 현재 베이징시 지하에 개발된 면적이 3천만㎡라면 시를 이룰 때까지 9천만㎡에 이르는 도심의 지하 타운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시민 1인당 5㎡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시는 그러나 지하 타운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는지 등 구체적인

그는 새롭게 개발된 지하 공간의 30% 가량은 주차장이고 다른 30%는 교통시설이며, 나머지는 상업 및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상원 인준해야” vs “새인물 세워야”

부시-민주 ‘불탄 인준’ 첫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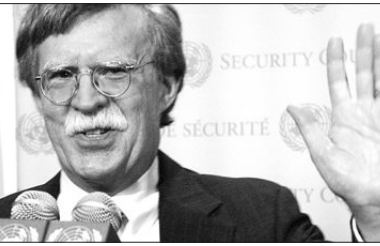
미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끝난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존 볼턴(사진)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인준문제를 놓고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부시 대통령이 불탄 대사 인준안을 상원에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백악관 측은 12일 상원에서 불탄 대사 인준안을 처리해 줄 것을 거듭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라크 정책을 놓고선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머리를 맞댄 채 ‘열린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5년 8월 불탄 대사에 대한 상원의 인준이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 및 공화당내 일각의 반발로 어렵게 되자 휴회기간을 틈타 불탄 대사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불탄 대사의 임시임기가 내년 1월 전에 끝나기 때문에 그를 유엔대

사로 계속 일하도록 하기 위해선 이번 상원의 인준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때문에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현 상원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인준을 마치기 위해 지난 9일 인준안을 제출했었다.

반면, 민주당은 ‘네오콘’의 핵심인 볼턴을 UN대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기 상원 외교위원장직이 유력시되는 조 바이든 의원은 이날 방송에 출연, 부시 대통령이 ‘불탄카드’를 고집하는 데 대해 “유능한 사람이 많으므로 새사람을 유엔대사로 세워야 한다”면서 “불탄대사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현 위원회에서 투표조차 못했던 인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이라크 주둔 미군 4~6개월내 철수 희망”

군사위원장 유력 레빈 의원

이라크 미군 조기철수를 반대해온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간선거 패배 이후 이라크 정책변화를 시사한 가운데 내년 1월 임기가 시작되는 미 상원에서 군사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갈레비 의원(민주)은 12일 이라크 주

둔 미군이 향후 4~6개월내 철수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레빈 의원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은 알도적인 국민들이 이라크 정책노선을 극적으로 바꾸라고 말했다”면서 “우리는 4~6개월내 이라크에서 미군재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SONY 소니 광주전시장 새단장 사은행사

2년 걸리는 브라비아! 차세대 Live Color Creation

신혼부부에게 특별가로 모십니다

결혼정보 모모

대한민국 최고의 결혼정보회사

신혼부부에게 특별가로 모십니다

문의: (082) 223-5949 / 010-9944-0682